

사진창작의 지름길 (1)

신구전문대학

홍순태 교수

(1) 시각의 훈련

1. 시각훈련에 필요한 구도

구도라는 것은 원래 미술의 영역으로부터 사용된 말로서, 주제를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 형, 색, 톤 등이 화면구성에 절대로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회화에서 말하는 삼각구도, 원, S자형, 혹은 방사선과 같은 기본적인 구도에 구애된다면, 넓은 전근대적 사진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회화의 경우는 화가자신의 의지와 감각에 의해 평면상에 생각하는대로 구성하면 되지만, 사진의 경우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자연풍경이나 현상을 카메라 파인더에 의해 절취하는 작업으로 구도는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회화의 화면은 그것 자체로서 독립된 구도를 가지나 사진은 화면밖과 연속된 부분으로써 구도가 존재한다. 사진은 구도의 법칙과 같은 것은 없고, 구도는 어디까지나 사진가가 주장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진가의 주관과 사진의 메카니즘으로 표현하는 시각예술인 것이다. 사진의 구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프레임(Framing), 카메라 앵글, 카메라 포지

션, 셔터찬스, 톤, 퍼스펙티브(Perspective) 등을 고려해야 한다. 풍경, 인물 등 소재의 선택은 개인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있지만 소재가 무엇이든 결론은 효과적인 구도를 만드는데 있다. 또 순간 포착의 경우도 이러한 연구를 태만히 해서는 안된다.

2. 액센트를 효과적으로

화면 어느 곳에 액센트를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주제의 의미를 강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효과적으로 액센트를 넣는 비결은 카메라 포지션과 카메라 앵글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촬영자 자신의 움직임에 의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지면의 질감을 묘사하는 어려운 톤, 놀이터의 천천만하게 뛰어 노는 어린이 등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화면을 단순화시켜 주제를 명확히 해야만 화면의 설득력이 있다.

3. 포인트의 차이

화면의 구성이 결정되고 촬영할 프레이밍이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셔터를 누를 단계가 된다. 이때 지금까지의 결심이 흔들리고 망서리

게 된다. 이때의 중요한 결심은 화면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역학관계가 일변해 버린다.

거리를 걸으면 눈에는 많은 것들이 띠게 된다. 어느 특정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할 때에는 포인트가 될 대상을 화면 어느 위치에 어느만큼 크기로 넣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만일 어느정도 만족할 수 없는 사진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확대과정에서 트리밍하는 것에 의해 화면의 구도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작화란 다만 시각에 느껴지는대로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시각을 작용시켜 무엇을 느꼈는가 하는 사진가의 마음을 그 사진속에 이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참다운 창작인 것이다. 즉 같은 피사체라 할지라도 표현상의 연구 여하에 따라 사진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4. 퍼스펙티브의 시각효과

사진은 2차원의 평면상에 표현되는 예술이므로 우리들이 실제보는 3차원적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평면적인 화면에 어떻게 주제를 표현하느냐 하는 포인트의 위치여하에 따라 원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퍼스펙티브라고 한다. 이것은 원근감을 강조하고 나아가서는 묘사력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훌륭한 구도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용가치가 큰 시각효과이다.

5. 구도를 바꾸어 여러장 찍는다.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한개의 피사체에 대해서 한매의 사진만을 습관적으로 촬영하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사진인은 완성된 사진을 보고, 이런 경우는 종구도보다는 횡구도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할 경우가 많다.

프로 카메라맨의 경우도 하나의 피사체에 대해 반드시 중형의 구도로 최저 5~6매의 사진을 촬영한다. 아마추어 사진인의 경우 비용관계로 그렇게 촬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 2~3매 정도는 재고하여 촬영해야 후회없는 사진이 될 것이다. 결혼식, 약혼식 또는 기념촬영의 딱딱한 분위기의 사진도 구도를 변형함에 의해서 느낌이 보다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6. 프레임의 중요성

카메라의 파인더를 들여다 보고 프레임에 화면을 맞추는 것을 프레임이라 한다. 사전에 의하면 조립, 골조, 구조, 구성, 틀, 계획 등의 뜻으로 풀이한다. 확실히 조립이나 구성의 뜻이지만 사진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의 뜻은 작화과정(作畫過程)의 의미로 보다 강조시킨 말이다. 즉 표현의 목적으로 하는 주체를 화면 틀 속에 어느 곳에 잡아서 구도를 구성하느냐이며, 거리의 스냅사진이건, 실내의 포트레이트(Portrait) 사진이건, 어느 피사체 중에 감동적인 묘사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라내어 작화하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것이나 효과를 약화시키는 부분을 과감하게 제외시키거나 생략할 때 좋은 창작적 사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촬영을 하는 좋은 비결은 전체를 설명적으로 많이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분묘사의 테크닉을 터득해야만 된다. 즉 좋은 창작사진은 프레임의 싸움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2) 풍경 사진

1. 사진표현의 변천과 풍경사진

자연의 형태나 표정을 사진으로 재현시키는

정석적인 풍경사진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적 생활의 감정을 짙게 풍기게 하는 풍경사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현대의 풍경사진에 있어서는 단지 외형적인 서정적 아름다움만을 묘사하는 풍경사진에서 벗어나 인공적인 도시의 단편을 표현하는 도시풍경사진,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비평적시각의 풍경사진, 사진가의 심리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심상적 풍경사진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2. 사진사적으로 본 풍경사진

사진발명의 본원적인 목적은 기록성에 있었다. 그러나 사진에 있어서의 예술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진하던 중에 인상파회화를 모방하는 회화주의 사진에 집착함으로써 사진예술의 퇴조를 맞이한다. (1858~1920) 그러나 1920년대에 사진적시각을 자각한 프랑스의 으젠느 앳제(Egene Atget)는 파리의 인간상과 사회적 환경을 기록하는 휴먼 다큐멘트에 충실했고, 미국의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는 직접적인 사진, 사진분리운동, 카메라 워크의 사진계간지, 291갤러리를 운영했고, 포울 스트랜드(Paul Strand)는 즉물주의 사진을 제창하여 사실성에 충실함으로 사진창작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사진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가서는 또 다시 신흥예술사진운동을 전개하여 사진은 예술성의 방향으로 다시 빠져든다. 모호리 나지(Moholy-Nagy)와 만레이(Man Ray)는 포토그램, 솔라리제이션, 포토 몽타지, 순간고정, 선예묘사, 원근감해방, 카메라 앵글 텍스츄어 등 사진의 독자적인 표현방식에 의해 사진의 예술성을 중시하는 사진으로 변천하게 된다.

3. 풍경사진의 기초기술

1) 풍경사진의 재발견

1960년대 이후의 표현기법은 대담한 테크닉이 출현하여 종전의 개념을 일시에 타파하고 표현의 자유성을 구가하게 되었다. 즉 핀트를 맞추지 않은 사진, 흔들림의 사진, 극단적으로 입자가 거친 사진, 톤을 무시한 하이 콘트라스트의 사진을 과감하게 시도함으로써 사진은 폭넓은 표현의 사진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아마추어 사진인의 입장에서는 정석적인 풍경사진에서 사진의 기초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나아가서는 관광지 등을 촬영하는 통속적인 풍경사진의 촬영을 배제하고, 농어촌, 산간벽지, 도시주변, 생활주변 등을 촬영하여 시각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

2) 프레임에 대하여(framing)

훌륭한 풍경사진의 비결은 프레임의 양부가 결정 지운다. 어느 풍경의 대상을 눈으로 보는 범위는 모두 같다. 인간의 시각은 광각렌즈와 같아서 보는 범위가 넓고, 또한 팬 포커스(pan focus)여서 지근거리부터 무한대까지 초점이 명쾌하게 맞아 있다. 그 보이는 넓은 풍경의 범위를 카메라의 파인더를 들여다 보며 필름의 화면속에 촬영되는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만큼의 범위로 촬영할것인가? 바로 이것을 결정지우는 것이 풍경사진의 비결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기술적으로 촬영자의 감각상의 문제인 것이다. 이 사진감각은 선천적인 점도 있겠으나 훈련을 쌓고 명작사진, 명작회화, TV, 영화 등의 감상을 통해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할때 무한한 시각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완벽한 프레임을 익히는 방법을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 ㄱ. 피사체와의 촬영거리(camera distance)
- ㄴ. 피사체를 보는 각도(camera angle)
- ㄷ. 35mm 카메라의 경우 종횡구도의 구분
- ㄹ. 렌즈의 초점거리의 선택(표준, 광각, 망원)

3) 셔터찬스와 광선상태

많은 사진인들이 풍경사진에 있어서 셔터찬스를 논하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모든 풍경은 옥외촬영이기 때문에 같은 풍경이라도 그 시간의 자연광선상태에 따라서 풍경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외에 계절, 천후, 시간대에 따라서 같은 풍경이라도 별개의 자연경관으로 보일때가 많다. 비발디의 "사계"라는 주제음악의 디스크 커버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한 장소에서 춘하추동 네번을 촬영하여 네매를 한 커버에 편집한다면 멋진 4계절 느낌이 표현되는 것과 같다. 사진은 광선에 의해서 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현의 의도에 맞도록 광선상태를 선택하는 것이 훌륭한 사진을 만드는 비결이다. 최고의 광선상태를 선택하여 촬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최선의 셔터찬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4) 풍경과 인물과의 조화

점경의 인물은 원하는 풍경속에 인물의 위치나 크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점경의 인물을 화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넣느냐 하는 것은 촬영자의 감각상의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한한 단순처리하는 것이 비결이다. 때로는 풍경과 인물을 조화시킴에 있어서 연출과 비연출의 문제가 발생한다. 혹자는 연출은 예술성이 없고, 비연출은 예술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기준이 없는 이야기이고, 연출이라 할지라도 비연출처럼 완벽한 연출이 부대되어야 한다.

5) 공간의 감각과 공간처리

공간의 감각은 오랜 기간동안 사진감각에 의해서 자연히 자기유형의 공간처리가 화면구성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자연풍경에 인물이나 특정물체를 전경, 중경, 후경에 배치하여 여러가지로 변형시켜 고찰하여 촬영해보는 것이 선

결 문제이다.

6) 사진의 톤(tone)

컬러사진의 경우는 다르지만 흑백사진에 있어서는 풍경사진은 톤이 가장 중요하며 미세한 계조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촬영시의 노출결정부터 인화할때까지의 일관작업에 완벽을 기해야하며, 완벽한 톤을 위해서는 노출, 필름의 현상, 인화 즉 3요소가 최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풍경사진의 카메라와 기재

1) 카메라

35mm, 중형 120, 대형 4×5, 8×10인치 일반 아마추어 사진인의 경우는 대부분 35mm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지만, 본격적인 풍경사진촬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프로사진가들은 중형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며, 풍경사진의 세계적인 추세는 4×5, 또는 8×10인치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 렌즈

여러 종류의 교환렌즈를 사용해야 화면을 다양화시키는 효과를 얻게된다. 또한 광각렌즈로부터 망원렌즈에 이르기까지 교환렌즈의 성능을 잘 터득하고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야 좋은 풍경사진이 된다. 아마추어 사진인의 경우의 약점은 망원렌즈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① 광각렌즈는 배경을 넓게 하고 원근감의 과장 피사계심도를 이용한 화면의 근경부터 원경에 이르기까지 선명하게 전화면을 맞추는 팬 포커스(pan focus)를 활용해야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피사체에 접근 촬영하는 것이 힘이있고 다이나미컬한 풍경사진을 만들게 된다.

② 망원렌즈는 초점거리가 길고 대상과의 거

리가 멀기때문에 카메라포지션이 크게 달라지고 피사계심도가 짧은 것을 이용하여 주제만 선명하게 살리고 앞과 뒤를 흐리게하는 아웃 오브 포커스(Out of focus)나 인 포커스(in focus)로 촬영해야하며, 불필요한 부제를 생략해서 화면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③ 필름의 선택

흑백, 컬러필름을 막론하고 풍경사진은 정적인 사진이므로 저감도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저감도 일수록 입자가 굵고 발색이 좋으며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두운 제약된 광선하에서의 촬영은 부득이 고감필름을 사용해야 한다.

<흑백필름>

저감도

Agfa Pan F	ISO 25
Kodak Panatomic-x	ISO 32
Ilford Pan F	ISO 50

중감도

Kodak Tmax 100	ISO 100
" Plus-x pan	ISO 125
Ilford Fp4	ISO 125
Kodak Verichrome	ISO 125
Fuji Neopan ss	ISO 100

고감도

Kodak TRI-x Pan	ISO 400
" Tmax	ISO 400
Ilford Hp5	ISO 400
Fuji Presto	ISO 400

초고감도

Kodak Recording 2475	ISO1000
" Tmax	ISO3200

<컬러필름>

저감도

Agfa Try Art Ultra	ISO 50
Kodak Ekta 25	ISO 25

중감도

Agfacolor XRS 100	ISO 100
Scotchcolor HR 100	ISO 100
Kodakcolor Gold 100	ISO 100

고감도

Agfacolor XRS 400	ISO 400
Scotchcolor HR 100	ISO 100
Kodakcolor Gold 400	ISO 400
" Vericolor Pro 400	ISO 400
Fujicolor Super HG 400	ISO 400

초고감도

Agfacolor XRS 1000	ISO 1000
Kodakcolor Gold 1600	ISO 1600
" EKTA 1000	ISO 1000
Fujicolor Super HG 1600	ISO 1600

<컬러 슬라이드>

Fujichrome Velvia	ISO 50
RFP	ISO 50
RDP	ISO 100
RTP	ISO 64
RHP	ISO 400
RSP II	ISO 1600
Kodachrome KM	ISO 25
KR	ISO 64
KL	ISO200
KPA	ISO 40
PKM(Pro)	ISO25
PKR()	ISO 64
PKL()	ISO 200
Kodak Ektachrome Hc100	
EC	ISO 100
ED	ISO 200

EL	ISO 400
ET	ISO 160
EPR	ISO 64
EPP	ISO 100
Kodak Ektachrome	
EPN	ISO 100
EPD	ISO 200
EES	800~1600

5. 복잡다양해지는 풍경

풍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풍경사진의 창작태도를 어떻게 취하는 것이 좋을 까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풍경사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연의 모습”을 가르키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산이나 바다 등의 자연의 모습이나 현상을 곧 풍경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풍경은 자연과 학적인 관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적인 관조의 대상으로 파악되어 왔고, 서양에서는 자연을 인간과 대립되는 존재로 보고 그것에 도전 내지는 극복한다는 사상을 키워왔지만 우리들 동양인은 자연과 인간이 혼연일체가 된다는 사상이어서 자연의 풍경과 인간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었다.

풍경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학, 음악, 미술 등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풍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의 의미로 감상되고 읊어지는 것이다. 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초기단계에 있어서 풍경사진은 미의 표현으로 일관되어 왔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촬영대상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또 어떠한 창작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명백히 밝힐 수 있었다. 즉 광선의 톤, 질감, 구도, 원근감, 계절감 등 몇가지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풍경을 소재로한 사진이라도 단순히 자연을 관조하고 그 아름다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의 빌딩숲을 표현하는 사진도 일종의 풍경이지만 자연풍경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또 밖의 세계의 자연풍경과 촬영자의 심리적 풍경을 하나의 명상속에 응결시키는 심상적 풍경이라는 종류의 사진도 단순한 풍경사진과는 다른 것이다. 자연모습으로서의 풍경표현-초기의 회화모방의 살롱포토,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풍경표현-자연과 인간의 조화속에 그 지방 특유의 풍토가 이루어진다. 즉 그 지방 특유의 자연적 역사적 조건이 포괄되어 하나의 로컬컬러가 형성되는 것이다.

1) 기록성의 표현

사회적 풍경사진(비평적인 사진)

자연은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끊임없이 파괴되면서 변모해 가는데 이 변모하는 모습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시점에서 파악하는 사회고발적인 풍경사진(테마에 대한 적극성, 그 현상의 내면에 있는 진실을 통찰하는 시각, 대상속에 문제점을 파헤치는 사회의식)

2) 조형적표현

인간은 사물을 보고 이미지로서 그것을 지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물을 물리적으로 파악하여 사물 자체로서 표현하려는 풍경사진

3) 심상적표현

사물을 접했을때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또는 직관에 의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 심리적인 이미지를 주축으로 해서 그 사물자체로 묘사하지 않고 사진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표현하는 풍경사진